

# 1920년대 開闢社의 조선지식 수집과 조선연구 토대 구축 - ‘조선문화 기본조사’의 추진과정과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조 형 열\*\*

---

머리말

Ⅰ. 조선문화 기본조사의 경과

Ⅱ. 조사의 발간 현황과 수집된 조선지식의 특징

Ⅲ. 개벽사의 편집방침 변경과 조선연구의 출발

맺음말

---

## 국문초록

천도교 개벽사가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추진한 ‘조선문화 기본조사’의 조선지식 수집 작업의 성격과, 조사 활동이 천도교 계열 지식인의 조선연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개벽사는 편집국 사회부 부원을 중심으로 전국 13도를 순회하며 자료 수합,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조선지식을 축적했다. 이는 1923년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발표하며 조선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조직적으로 사우제(社友制)를, 콘텐츠 확충을 위해 기본조사를 채택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조선지식의 수집은 문화운동의 한 방편으로 기획되었으며, 조사 대원들은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실정 파악과 함께 조선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물, 사건, 지리, 단체,

---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yeri75@hanmail.net)

풍속에 대한 목록을 작성했다. 수집된 조선지식은 많은 부분 조선시대사에 관한 것이었고, 지배체제에 저항하거나 동학 천도교 활동에 대한 항목이 강조되었다.

조사가 완료된 1925년부터 잡지 『개벽』은 조선을 재조명하는 기획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또한 폐간 이후 출간한 『별건곤』은 조선의 사회(史禍) 당쟁(黨爭), 반외세 투쟁에 대한 글을 다수 수록했다. 문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조선문화 기본조사’는 『개벽』의 편집방침 변화와 천도교 계열 지식인의 조선연구 진출과 연결되었다.

주제어: 문화운동, 천도교, 조사활동, 조선왕조 비판, 동학

## 머리말

개벽사는 1923년부터 잡지 『개벽』의 지면을 통해 ‘조선문화 기본조사’(이하 ‘기본조사’)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3도를 모두 답사한 뒤 각 도별 특집호를 발행한다는 내용이었다.<sup>1)</sup> 이 글은 이와 같은 기본조사가 조선지식의 본격적인 수집을 천명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선지식의 축적은 조선에 대한 상세한 분석 위에 조직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였으며, 조선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이자, 조선상(像)의 확립을 위한 실증 작업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조사는 천도교 개벽사식 조선연구의 토대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지배권력에 의한 조사(調査, investigation)가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문의 데이터를 만들었듯이,<sup>2)</sup> 조선인에 의한 조사 활동도 식민통

1)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各道道號의 刊行」, 『개벽』 31, 1923년 1월, 102-103쪽.

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 글의 작성에는 아래 연구를 주로 참고했다. 박현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사회·문화 조사 활동」, 『한국문화인류학』 12, 1980; 박현수, 「일제의 침략을 위한 사회·문화 조사 활동」, 『한국사연구』 30, 1980; 박현수, 「일제의 식민지 조사기구와 조사자」, 『정신문화연구』 21-3, 1998;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김태웅, 「일제강점기 小田內

치와 각축하면서 조선연구의 배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그리고 이는 조선연구, 조선학의 출현에 민족운동, 사회운동이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기본조사에 대해서는 개벽사와 『개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검토되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개벽』 지면의 구성 및 글쓰기와 관련하여, 특히 기행이라는 형식에 주목하여 전국토를 민족의 심상공간으로 기억화하려는 기획이었다는 연구이다.<sup>4)</sup> 둘째, 기본조사가 시작된 맥락과 관련해서 『개벽』의 정치사상과 매체 편집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한 연구들이다.<sup>5)</sup> 마지막으로 중심인물로 활동했던 차상찬에 대한 조명 가운데 기본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이다.<sup>6)</sup>

通敏의 조선통치 인식과 ‘조선부락조사’, 『한국사연구』 151, 2010; 이영하, 「일제의 ‘구관제도조사사업’과 그 주요 인물들」, 『역사문화연구』 68, 2018.

- 3) 조선연구와 조선학 연구가 지식인·연구자의 개별적 성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의 제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각종 기획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10년대 朝鮮廣文會와 新文館이 古書 등을 수집하고 각 지역의 구전 등을 투고를 통해 모았다면, 1920년대 이후 신문 잡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조사 활동을 벌여나갔다. 또한 1930년대까지 조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체 조직이 활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러한 경향을 조선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말로 표현했고(『동아일보』, 1927년 6월 22일, 「자아성찰의 경향」), 이는 일제 말기 조선일보사가 추진한 향토문화 조사로까지 이어졌다.
- 4) 김진량, 「근대 산문의 글쓰기와 지역 인식-〈개벽〉의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 연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0, 2007; 홍순애, 「1920년대 기행문의 지정학적 성격과 문화민족주의 기획-『개벽』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49, 2010; 이희정, 「식민지 시기 글쓰기의 전략과 『개벽』-「조선문화의 기본 조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1, 2010.
- 5) 이경돈, 「1920년대 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사림』 23, 2005; 송민호, 「1920년대 근대 지식 체계와 『개벽』」, 『한국현대문학연구』 24, 2008;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허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12, 2008.
- 6) 김태웅, 「차상찬의 지방사정조사와 조선문화인식-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48, 2018; 박길수, 『차상찬 평전: 한국 잡지의 선구자, 모시는사람들, 2012. 최근 차상찬에 대한 기념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연구도 발전하고 있다. 정현숙, 「차상찬 연구①-기초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제언」, 『근대서지』 16, 2017; 정현숙, 「차상찬 연구②-필명 확인(1)」, 『근대서지』 17, 2018; 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 편, 『차상찬 전집』 1-3, 청오

일단 선행연구는 기본조사가 잡지 『개벽』 지면을 통한 ‘문화적 민족주의’ 확산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도 발견된다. 첫째가 지면으로 발표된 글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둘째와 셋째는 전국적인 조사의 의의에 더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벽사가 사운을 걸고 시도한 대기획은 잡지 편집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다. 『개벽』으로 결집한 천도교 핵심세력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조선의 문화운동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는 한 가운데 기본조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1923년 9월 설립된 천도교청년당의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sup>7)</sup>

이 글이 기본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후자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후자도 기본조사가 조선지식을 수합함으로써 조선연구를 개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의 전개과정과 내용에 대한 직접적 천착이 요청되는데, 선행연구는 기본조사 자체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다.<sup>8)</sup> 즉 기본조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조선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천도교 계열의 조선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차상찬기념사업회, 2018.

- 7) 허수, 앞의 글, 319쪽. 천도교청년당에 대한 연구는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05, 1999 ; 성주현, 「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 8) 기본조사의 추진 상황과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한 연구자는 김태웅이다. 그는 기본조사를 1925년 조직된 조선사정조사연구회와 연결되는 활동으로 이해하며, “지식·정보의 민족적 공유와 민족 차원의 확산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수립함과 동시에 일제가 야기한 한국 민중의 총체적 난국에 민족적 대단결을 통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주권을 상실했음에도 한국인이 통치 지식의 독점자인 일제에 저항하면서 현실의 당면과제를 스스로 타결할 수 있는 주제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김태웅, 앞의 글, 2018, 253-254쪽). 그러나 일제 통치에 비판적인 지식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집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조사의 추진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조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개벽사의 사원 파견, 조사 기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이는 민족운동, 문화운동적 목적에서 출발한 기본조사의 목표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sup>9)</sup>

둘째, 조사의 외화된 보고 형태인 도호(道號) 및 답사기의 구성과 수집된 조선지식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기본조사 시작부터 조사 항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연혁과 자연지리, 인문지리 관련 수집 사항은 거의 동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은 각 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재료로 선택된 것들인데, 인물과 사건 그리고 지명·시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기본조사로 축적한 조선지식의 특정한 성향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기본조사가 미친 영향을 『개벽』의 편집방침 변화와 개벽사 계열 잡지에 나타난 조선연구의 전개상황 등을 통해 검토한다. 1923년까지 좀체 찾아보기 어렵던 조선에 대한 기획이 폐간까지 약 1년 동안 3~4회 집중 발표된 것, 『별건곤』 등의 조선 역사문화 기사가 수집된 조선지식과 어떠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I. 조선문화 기본조사의 경과

개벽사가 기본조사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1923년 1월호 사고(社告)

9) 한편 이는 잡지 『개벽』을 민간학술사에 배치하는 시도(한기형, 「배제된 전통론과 조선인식의 당대성-『개벽』과 1920년대 식민지 민간학술의 일단」, 『상허학보』 36, 2012)로부터 시사점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비제도권 민간의 학술활동이 대부분 운동에 기원을 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학문'이 되기 위한 특정한 방법론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문화건설을 전망하는 가운데 학문 연구와 조선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를 통해서였다. 개벽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 부분을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더 좀 근거 김혼 운동이 우리에게 잇서 조코 더 좀 성의 넘치는 작사(作事)가 우리에게 잇서 좇타.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써 바랄 일일가. 우리는 입만 열면, 붓만 들면 다—가티 가로되 조선을 위한다 하며 사회를 위하노라 한다. (중략)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잘 감동되는 사람이 될 수 업스며 가장 잘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업는 것이다. (중략) 즉 조선의 일반현상을 근본적으로 답사하여써 그 소득을 형제에게 공개하기로 한다.<sup>10)</sup>

기본적인 취지는 말로만 조선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조선을 위하려면 조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알고 조선의 주인이 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한 단계 수준 높은 운동을 전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운을 걸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대형 기획이 당연히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1월호에 발표했으니 이미 전년도부터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즉 개벽사의 활동방침에 대한 총체적 논의에 기초해서 기본조사가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1922년 11월에 실린 사우제도(社友制度)의 시행에 대한 광고이며, 1923년 1월 권두 논설로 등재된 ‘범인간적(凡人間的) 민족주의’이다.

사우제도는 개벽사가 자신들의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을 조직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했다. 사우에 일정한 금액을 내고 개벽사의 출판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각지 지방 통신원 역할도 맡을 수 있었다.<sup>11)</sup> 개벽사가 사우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를 직접 밝혀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1920년 여름부터 문화운동을 시작했지만 범인간적 민족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우제도

10)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各道道號의 刊行」, 『개벽』 31, 1923년 1월, 102-103쪽.

11) 최수일, 앞의 책, 277-280쪽.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12)</sup> 즉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1923년 1월 지면에 공식 등장하지만, 이미 1922년 말부터 사우라는 동조자 조직을 만들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개벽사는 “민족으로써 타민족의 소유권 침해를 방알(防遏)할 뿐만 아니라 진(進)하야는 인류의 무한한 욕망을 유한적 물질적 경쟁에 희생치 말고 무한적(無限的)한 창조적 생산에 용심(用心)하게 되면 인류는 스스로 각자의 행복하에 인도적(人道的) 생활을 경영하게” 된다는 게 요지라고 설명했다.<sup>13)</sup>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세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인류주의를 절충하고 지양하기 위한 시도였다.<sup>14)</sup> 즉 민족도 계급도 아닌, 모두가 행복한 인도적 생활로 나아가는 게 중차대한 과제였다. 민족주의자 가운데 활동하는 것도, 사회주의자와의 연대를 구상하는 것도 아닌 독자적 활동노선의 표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동방식의 창안도 필요했는데, 이는 위 인용문의 표현대로라면 ‘무한한 창조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바로 사우제도가 실천 활동을 통한 조직체계의 창출이라면, 기본조사는 지역조직과 긴밀한 유대를 만드는 과정이자 조선운동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다.

개벽사는 실제로 기본조사 기간에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산장려운동은 조선민족이 취할 유일한 길로서 한계가 있고, 사회주의 사상도 최후의 각오를 다질만한 분명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자가가 구제되고 조선이 구제되며 그 파문이 들퍼져 드대여 전인간(全人間)이

12) 「開闢社 社友制의 設行에 關한 趣意와 規定」, 『개벽』 29, 1922년 11월, 114쪽. 이 글 안에 사우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13) 「凡人間的 民族主義」, 『개벽』 31, 1923년 1월, 9쪽.

14) 여기서 인류주의는 당시 맥락에서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이었다. 허수, 앞의 글, 322쪽.

구제될 유일한 사위(事爲)”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sup>15)</sup>

개벽사는 1923년 3월에 사우제도의 시행과 기본조사를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이대 선언이라고 명명했다.<sup>16)</sup> 즉 기본조사는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조선운동의 모색 단계에서, 사우제도와 함께 개벽사가 추진한 역점 사업이었던 것이다. 기존의 잡지 편집 경향과는 분명히 다른, 단순히 잡지의 원고를 기획하는 것과도 다른, 실천적 조직적 목적이 개입되었다.<sup>17)</sup>

기본조사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근 3년 가까운 시기 동안 『개벽』에 실린 관련 기사를 통해 전체 일정을 재구성해보았다. 주로 각 지역별 담당자, 일정, 조사 방법과 협조·대면 인물 등을 통한 조사 방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다. 아래 〈표 1〉로 정리했다.

- 
- 15) 「한닙이 떨어짐을 보고 慶南地方을 본 느낌의 一端」, 『개벽』 34, 1923년 4월, 73-74쪽.  
 16) 「우리의 二大宣言을」, 『개벽』 33, 1923년 3월, 4-5쪽. 한편 1922년 9월 12일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개벽』지가 정치 경제에 관한 일반 시사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것도, 개벽사가 적극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였다(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2015, 157쪽).  
 17) 이경돈은 기본조사의 취지가 '조선의 10대 위인 기획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경돈, 앞의 글, 47-50쪽). 개벽사가 조선의 역사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수 있지만, 기본조사의 형태와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1922년 9월호에 실린 도시순례와 같은 것이 기본조사의 원형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박달성, 「內外面으로 觀한 開城의 真相-도시순례의 其一-」, 『개벽』 27, 1922년 9월, 63-70쪽. 이 글에서는 개성의 지형, 시가지, 探勝, 산천, 내면(인구, 단체, 풍속) 등을 정리하고 있다.



〈표 1〉 조선문화 기본조사 지역별 담당자, 일정, 인적교류 상황<sup>18)</sup>

지역	담당	일정(○ 표기) 및 자료 수집 방법(▷ 표기)
경남	金起田 車相瓚	○ 1923년 2월 2일~7일. 출발 마산, 진주. 2월 8일 이후 1대 사천 하동 남해 삼천포 부산. 2월 말까지 진행 ▷ 東萊 등 沿海 諸郡, 2대 산청 함양 등 山峽 諸郡 ▷ 晉州 도청 방문 자료 획득, 민간 유지 방문 ▷ 경남 도당국 造林業 관련 인터뷰, 申鏞九(천도교 중법사), 朴台弘(청년회장), 尹炳殷(동아일보 지국 기자), 金義鎮 협조 ▷ 丹城 姜益秀(천도교 전교사), 李漢東(단성청년회 간부), 孫秉國(면장, 청년회부회장), 趙顯璋, 崔仁煥(단성청년회장), 崔璇鎬, 李炳權, 李炳和, 權泰漢(단성청년회 총무) ▷ 泗川 板東(일본인 대금업자). 尹值相 朴南俊 姜駿鎬 黃載秀 등 협조 ▷ 昆陽 崔學範(곤양 분사장) 협조 ▷ 河東 趙東赫, 金珍斗(동아일보 분국장), 趙鍾錄, 朴鳳儀(진주시사 총무) 등 협조 ▷ 雙溪寺 金龍基, 成碩宗, 姜守一 등 협조 ▷ 山淸 金渭尙(보통학교 훈도) 閔泳植(산청자기주식회사 인터뷰), 吳周錫·金永增(군정 면소 유지 방문에 협조)
경북	차상찬 李乙	○ 1923년 3월 이후. 6월~7월 추가 조사 ▷ 鬱陵島 朴敬鎮 협조
평북	朴達成 韓重鎔 趙基榮 李成三	○ 1923년 5월 중순 출발. 1대 국경 방면, 2대 철도 연선 방면 ▷ 安東縣 金雨英(日本領事館 副領事) 대면 ▷ 義州 洪宇龍, 崔安國, 金子一, 金得弼, 黃河堤 협조 ▷ 熙川 金宗浹, 李巖垣, 康成三, 羅錫堦 협조 ▷ 妙香山 普賢寺 朴普峯(주지), 金承法(승려), 光成學校 尹宗植, 康柄鍵, 쇼(이상 교사) 上院庵 金龍海(庵主), 李瓊垣, 裴晉英 대면 ▷ 江界 俞恒濬, 金文關, 李元行, 金道賢, 韓旻夏, 尹昌洙, 姜炳柱, 李應華, 金世勳 협조, 관공서와 민간유지, 江界郡守 방문 ▷ 慈城邑 金鳳紀, 金文鳳, 李京善 협조 ▷ 中江津 仁愛醫院 金勝秀, 普成學校 楊喜濟, 金錫鴻(이상 교원) ▷ 楚山邑 張天承(협조) 관공유지 방문
강원	차상찬	○ 1923년 8월 23일 춘천으로 출발. 89일 체류. 11월 2일 고성 금강산 도착. 도내 10여 군 탐방. 11월 초순 종료

18) 『개벽』 수록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제호와 발행연월일은 빼고 기사명 옆에 필자와 권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전거를 대신한다. 「『 편집국으로부터』(32); 「『 慶南에서』(33); 「『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一部發表』(34); 「『 雪裏花開 四時長春의 智異山』(一記者, 34); 「『 우리의 足跡 - 京城에서 咸陽까지』(車相瓚, 34); 「『 擲筆之餘』(35); 「『 淸川江 以北 兄弟에게』(35); 「『 擲筆之餘』(36); 「『 一千里 國境으로 다시 妙香山까지』(春坡, 38); 「『 東海의 一點碧인 鬱陵島를 찾고 서』(李乙, 41); 「『 餘言』(41); 「『 江原道를 一瞥한 總感想』(42); 「『 咸北縱橫四十有七日』(朴達成, 43); 「『 燈下不明의 近畿 情形』(47); 「『 남은 말씀』(50); 「『 이번은 咸南踏査』(51); 「『 꽃말씀』(51); 「『 北行 三日間』(遮湖에서 朴達成, 52); 「『 餘言』(53); 「『 北國千里行』(靑吾, 54); 「『 餘言』(56); 「『 忠北踏査記』(特派員 車相瓚, 58); 「『 餘言』(58); 「『 黃海道에서 어든 雜同散異』(朴達成, 60); 「『 餘言』(61); 「『 全羅南道踏査記』(特派員 車相瓚, 63); 「『 全羅北道踏査記』(特派員 車相瓚, 64); 「『 湖南을 一瞥하고』(靑吾, 64).

함북	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3년 10월 6일 출발, 47일 진행, 11월 중순 종료</li> <li>▷ 淸津 朴庸淮(전 개벽사 사원) 池華瑞(『개벽』 독자) 협조, 金淸錫(사립보통학교 교장), 申圭範(소년회장), 李永順(龍城青年會長) 대면</li> <li>▷ 羅南 李範大(關北佛敎會) 대면, 姜鶴秉(咸樂書館主), 金基哲(北鮮日日社 기자) 협조, 洪鍾華(北鮮日日社 사장)</li> <li>▷ 鏡城 尹秉球, 李雲赫, 金哲殷, 李庸儀(청년회장), 李雲赫 협조, 郡廳 面所 鄕校 등 방문, 車炳澈(전 면장), 孫政起(면장) 대면</li> <li>▷ 龍井 趙陽澤, 全泰英 협조</li> <li>▷ 雄基 柳宗學(동아일보사 분국), 崔德煥 협조, 군청 및 민간유지, 면장 집 방문</li> <li>▷ 明川 朴慶宰, 朴慶煥, 車淳榮(청년회장), 曹百雲, 車鍾協, 任錫顯, 金峰秀(군 서기), 李淡(청년유지), 金道日, 崔惠鍾(박달성 동창) 협조, 車鍾瓏(西面 면장, 『개벽』 사우), 崔泰重(上峯面 면장), 鄭基男(동장), 董弼漢(花臺面 면장), 明川郡守 李丙植, 金元日(군 서기), 玄台榮(공립보통학교 훈도) 車鍾奭 대면</li> <li>▷ 城津 康弘俊(동아일보사 분국) 申鉉道 협조, 崔泰亨(군청) 대면</li> </ul>
충남	차상찬	○ 1923년 11월 초순 출발
경기	차상찬 이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抱川 尹元世의 협조로 농민 9명 인터뷰</li> <li>▷ 抱川郡守 朱英煥 대면</li> </ul>
평남	김기전 차상찬	○ 1924년 7월부터, 8월 10일 귀경
함남	박달성 이을 차상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4년 8월 30일~10월 8일 1대 함남 이북, 10월 3일~ 2대 함남 이남</li> <li>▷ 咸興 崔斗先, 崔基弼, 朴來玉, 文泰稷 등 협조</li> <li>▷ 利原 金允學 협조</li> </ul>
충북	차상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5년 1월</li> <li>▷ 忠北道知事 朴重陽 방문</li> <li>▷ 忠州 李善圭, 吳彥泳, 徐相庚, 具英 등 협조</li> </ul>
황해	차상찬 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5년 3월 16일 출발, 20일 일정 11군 탐방 계획</li> <li>▷ 경찰서 방문</li> <li>▷ 金文煥, 金振瑤, 郭柄奎, 金鳳瑞, 崔龍煥, 失福順 등 협조</li> <li>▷ 載寧郡守 朴性宙, 信川郡守 沈相國, 安岳郡守 南基允, 黃州郡守(日本人), 鳳山郡守 李承九, 谷山郡守 趙九鉉, 新溪郡守 朴鳳九, 平山郡守 劉燾燮 대면</li> </ul>
전남	차상찬	○ 1925년 6월 19일~8월 2일 10군(광주, 담양, 화순, 곡성, 순천, 광양, 여수, 보성, 장흥, 영암) 답사. 구례에서 장마로 10여 일, 순천에서 병마로 1주일 소요. 영암에서 잡지 정간 통보로 귀경. 실제 기간 1개월 미만
전북	차상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일 귀경일 합쳐 총 14일</li> <li>▷ 雄州, 巨郡 10여 곳 방문</li> <li>▷ 각 군청 방문</li> </ul>

기본조사 시행 전에 개벽사는 사고를 통해 조사 기간을 발표했다.<sup>19)</sup> 1개월에 한 도를 답사하고, 익월호에 결과물을 잡지에 수록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19)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各道道號의 刊行」, 『개벽』 31, 1923년 1월, 102~103쪽.

1923년 3월에 첫 도호를 발간하고, 1924년 3월에 마지막 답사를 다녀온 뒤 4월에 잡지 발행을 끝으로 조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처럼 순탄치 않았다. 위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답사 이후 마지막 답사까지 기간은 2년 4개월이 넘게 걸렸다.

그리고 강원도 답사는 거의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마지막의 전라북도에는 겨우 14일 만에 마무리했다. 초반에 열정이 넘치던 것에 비해, 후기로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1926년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서둘렀기 때문에, 자신들도 마지막에는 ‘무성의 무책임’했음을 고백했다.<sup>20)</sup>

잡지 발간 때는 경성을 따로 떼어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제 답사 지역은 13도로 설정되었다. 경북의 경우 한 번에 답사를 끝내지 못하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북을 갔을 때는 안동현까지, 함북에서는 용정까지 방문했다. 이는 답사지가 반드시 영토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것도 조선 내의 문화라기보다 조선인의 문화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조사 담당자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모두 7명이고, 차상찬이 11회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박달성 4회, 이을 4회, 김기전 2회, 조기간, 이성삼, 한중전 등이 1회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상찬은 『개벽』의 각종 편집 요직을 돌아가면서 역임할 만큼 많은 업무를 담당했고,<sup>21)</sup> 박달성은 1923년 가을 시점에 편집국 사회부 주임이었다.<sup>22)</sup> 이들과 김기전도 개벽사 편집주간을 맡는 등 실무에 중추적 인물이었다.<sup>23)</sup> 조기간과 이성삼은 『개벽』에도 관여했지만 주

20) 「餘言」, 『개벽』 64, 1925년 12월, 54쪽.

21) 차상찬에 대해서는 각주 6번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

22) 「특히 北鮮兄弟에게」, 『개벽』 40, 1923년 10월, 112쪽. 박달성의 천도교 청년운동 등은 다음 논문이 상세하다.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인 朴達成의 사회·종교관과 문화운동」, 『동학학보』 22, 2011.

23) 개벽사 편집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용서, 앞의 글, 2015 참조.

로 천도교 조직사업에 참여했다.<sup>24)</sup> 마지막으로 한중전은 당시 신의주지사의 사원이었다.<sup>25)</sup>

즉 차상찬이 많은 역할을 담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개벽사를 책임지고 있던 박달성, 김기전, 이을 등이 거의 공동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 개벽사의 직제상으로 본다면 사회부의 역할 소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6)</sup> 실제로 이러한 역할 구분이 없었다면, 아무리 개벽사가 많지 않은 인원이 공동으로 일을 떠맡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조사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표를 통해 검토해봐야 하는 점은 자료를 수집한 방식과, 이 과정에서 작동한 인적 네트워크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일단 기본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실지조사라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했다. 이 점에서 기본조사가 일제의 근대적 조사방법의 수용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sup>27)</sup>

일단 문헌조사의 경우 대략 세 가지 사례를 확인했다. 첫 번째로 잡지 지면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인한 것인지, 답사 출발 이전에 조사한 것인지 상황에 따라 다소 불분명하지만, “읍지(邑誌)를 거(據)하면”이라는 표현 등 지방지를 활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8)</sup> 차상찬은 평남 답사시에 수집한 녹족부인(鹿足夫人)에 대한 전설을 숙천읍지(肅川邑誌), 안주읍지(安州邑誌), 평양지(平壤誌) 등을 바탕으로 서술했다.<sup>29)</sup> 이처럼 조선의 전통적 기록 역시

24) 두 사람의 약력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3, 민족문제연구소, 2009 해당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삼의 본명은 李團이다.

25) 「擲筆之餘」, 『개벽』 35, 1923년 5월, 155쪽.

26) 개벽사는 사무집행기관으로 編輯局 아래 調査部, 政經部, 社會部, 學藝部를, 營業局 아래 經理部, 販賣部, 廣告部, 代理部를, 마지막으로 庶務課를 두었다. 「開闢社 社友制의 設行에 關한 趣意와 規定」, 『개벽』 29, 1922년 11월, 115쪽.

27) “이러한 현지 답사 장식은 小田內通敏 등의 근대적 조사방식을 수용하면서도 동포들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스스로 지식정보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김태웅, 앞의 글, 2018, 238쪽).

28) 達成, 「내가 본 國境의 一府七郡」, 『개벽』 38, 1923년 8월, 88쪽.

29) 靑靄 記, 「鹿足夫人・桂月香・玉介」, 『개벽』 51, 1924년 9월, 77쪽.

기본조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로, 선행연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고적과 유물 등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의 설도 반영하고 있었는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대표적이었다.<sup>30)</sup> 예를 들어 전북 교룡산성(蛟龍山城)에 갔을 때 ‘축성(築成) 연구의 대가인 세키노 박사의 설을 인용하면서 중국과 조선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건축법이라고 표현한다든지,<sup>31)</sup> 평남의 점선비(黏蟬碑)에 대해서 세키노가 주도한 고적조사보고서를 참고하는 것 등이 그러했다.<sup>32)</sup>

세 번째는 각종 관련 서적이라든지 현지에서 조달한 자료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지조사와 서로 겹치지만 이 역시 문헌조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보면, 모두 박달성의 함북 조사에 나오는 데, “참고서”에 의하야 지역상황의 대체를 그려보겠다, “나남역두(羅南驛頭)에서 김기철(金基哲)씨가 준 회령급간도(會寧及間島) 일책(一冊)은 큰 참고품”이 되었다든지, 또한 군 서기가 군세일람(郡勢一覽) 자료를 빌려줘서 상황을 파악했다든지 하는 언급이 여기에 해당한다.<sup>33)</sup>

실지조사는 협조자와 면담자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협조자도 정보 수집 대상자이기 때문에 양자가 명확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기본조사에 활용된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가피하다. 일단 각 지역의 모든 협조자가 <표 1>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도호 안에 기행 형태의 서술 원고가 없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건조하게 사실만 기록한 기사에는 조사 진행과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파악 가능한 지역은 8개 곳이고, 그나마 비교적 상세한 것은 경남, 평남, 함북의 사례이다.

일단 천도교 관계자들이 일차적으로 눈에 띄고, 이들이 당연히 중요한 역할

30) 세키노 타다시의 조선미술 연구에 대해서는 류시현, 「1900~1910년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 문화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9-2, 2018 참조.

31) 特派員 車相瓚, 「全羅北道踏査記」, 『개벽』 64, 1925년 11월, 103쪽

32) 「平壤府의 藩屏인 大同郡」, 『개벽』 51, 1924년 9월, 97쪽.

33) 朴達成, 「咸北縱橫四十有七日」, 『개벽』 43, 1924년 1월, 146쪽, 152쪽, 178쪽.

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천도교 종법사·전도사, 전 개벽사 사원, 『개벽』 사우 등이 중심이 되었다. 다만 개벽사 지사·분사 등의 조직적 참여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음으로 청년회, 소년회, 신문사 지국 등 지역사회운동과 밀접한 관련 아래 조사가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여론을 좌우하는 중요 자원 가운데 한 세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협조는 자연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전현직 면장, 각급 학교 교원, 민간유지 등 지역 명망가들이었다. 즉 기본조사는 천도교 조직체계와 지역사회운동, 지역유지의 도움이 어우러져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방문하고 대면한 사람들, 즉 협조자로서 지위와 무관한 이들은 주로 행정관료이거나 지방 부호였다. 대표적으로 자료 수집을 위해서라도 군청에는 모두 방문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 같다. 그런 까닭인지 전북에서는 10여 개 군을 다녔는데 한 사람의 군수도 못 만났다고 푸념과 비판을 늘어놓기도 했다.<sup>34)</sup>

지금까지 검토한 대로 기본조사는 개벽사의 범인간적 민족주의 원칙 아래 사우제도 시행과 함께 1923년부터 시작된 역점 사업이었다. 새로운 조선운동의 전형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각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2년 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적어도 뗏 백방리(百方里) 적어도 뗏 백만인 적어도 뗏 천년사를 가진 그 도의 과거 현재 및 장래까지의 문화의 총량을 답사하기에 여간 월여(月餘)의 시일 여간 일이(一二) 개인의 관찰로 감히 되겠습니까. 여간 월간 잡지사로는 사(事) 자체가 본래 환영치 안이할 것이외다. 그런 줄 알면서 뭘 시작을 하얏느냐? 그래도 하야 겠습니다. 난사(難事)요 대사(大事)이지만 그래도 하야겟다고, 안이하면 할 놈이 업겟다고, 이 때에 안이하면 다시 때가 업겟다고, 가다가 업터지고 오다가 쓸어질 지라도 개인의 피가 다 하고 사(社)의 힘이 다 한다 해도 다 하기 그때까지

34) 靑吾, 「湖南을 一瞥하고」, 『개벽』 64, 1925년 12월, 108쪽.

우리의 손으로 향토의 문화를 저울때(저울대-인용자) 복판에 올려 노아보자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외다.<sup>35)</sup>

여섯 번째 함북 답사 즉 기본조사가 겨우 반환점에 도달한 다음에 박달성은 위와 같이 조사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아무리 갖은 고난이 닦쳐오더라도 헤쳐 이겨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천도교가 조선운동의 중심세력이 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었다.

## II. 조사의 발간 현황과 수집된 조선지식의 특징

도호의 발행 상황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부 검토되었지만,<sup>36)</sup> 어떤 기사를 통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았다. 기사의 작성과 조사 발간 상황 분석은 지식정보 수집 내용을, 또한 조선지식을 어떠한 형태로 발표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표2>를 통해 권호별로 관계 기사 수록 현황을 정리했다.

<표 2> 권호별 조선문화 기본조사 관계 기사 수록 현황

지역 (편수)	권호	기사명(필자)
경남 (13)	33	慶南에서(起漣)
	34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一部發表, 南江의 洛花와 金碧의 冤血(靑吾), 「雪裏花開 四時長春」의 智異山(一記者), 慶南東拓所有地, 智異山譜, 慶南地方의 倭債, 兄弟 妻子 不相見의 形形, 慶南雜話(一記者), 우리의 足跡-京城에서 咸陽까지(車相讚), 釜山の 貧民窟과 富民窟-南海 一帶를 어를 지내던 追憶(小春), 讀嶺誌(鳳山), 한님이 떨어짐을 보고-慶南地方을 본 느낌의 一端
경북 (16)	36	朝鮮文化의 基本調査(其二) 慶北道號 上, 癩病의 研究 及 治療法(統營 海東醫院長 金尙用), 三百年前에 歸化한 大和魂 慕華堂 金忠善公의 奇行(靑吾), 多恨 多淚한 慶北의 民

35) 春坡, 「먼저 咸北號를 읽으실 이에게」, 『개벽』 43, 1924년 1월, 141쪽.

36) 김태웅, 앞의 글, 2018, 236~237쪽.

		謠(C,S,C生), 時代의 罪나 社會의 罪나 悲絶凄切한 香娘의 죽음, 나의 본 慶北의 各郡-大邱 善山 金泉 尙州 聞慶·禮泉 榮州 奉化 安東
	38	一千年 古都 慶州地方, 蔚山漫草
	39	穀鄉 永川의 發展?, 日鮮融和에 發狂된 永川倅, 東海岸의 大都市, 盈德은 엇더한 지방?, 英陽教育界에 一大怪事(李乙), 嶺南의 巴蜀, 동해의 一占碇인 鬱陵島를 찾고서(李乙), 李朝에 貢獻한 靑松
평북 (10)	38	一千里 國境으로 다시 妙香山까지, 鴨江 以南 清川 以北을 大體로 말하면, 平北의 産業-農工尙畜林鑛, 一高一下한 平北의 二大界, 내가 본 國境의 一府七郡(達成), 東洋의 一大寶庫 國境冷岸의 大森林, 國境에서 어든 雜司散異
	39	妙香山으로부터 다시 國境千里에(春坡), 내가 본 平北의 各郡-龍川 鐵山 宣川 定州 龜城 雲山 寧邊 博川, 清江以北과 洪景來將軍-巨金 百三十年前 事實(一記者)
강원 (9)	42	朝鮮의 處女地인 關東地域, 萎靡不振한 江原道の 産業, 嶺西八郡과 嶺東四郡, 이땅의 民謠와 童謠, 關東雜詠(靑吾), 泰封王 金弓裔는 엇더한 人物인가(一記者), 悲絶壯絶한 閔大將의 畧史, 世界 稀有의 私設遊廓 = 보라 이 有産者의 所爲를, 江原道를 一瞥한 總感想
함북 (6)	43	咸北縱橫四十有七日, 그러면 咸北의 大體가 엇더한가, 咸北 사람의 본 咸北과 記者의 본 咸北, 北關말 한마디, 恨을 남겨둔 茂山과 穩城, 最後로 멧조각 雜司散異
충남 (11)	46	兩班의 淵藪인 忠南地帶, 産業一瞥, 임병이 忠淸南道를 보고-公州 天安 牙山 禮山 唐津 書算 舊泰安 洪城 江景 燕岐 大田, 百濟國亡物語, 戰爭上으로 본 忠淸南道(一記者), 鷄龍山아(香爐峰人), 湖西雜感(靑吾), 夫餘懷古(靑吾), 名勝과 古蹟, 甲午 以前の 湖俗一般(李鍾麟), 追憶과 希望(閔泰瑗)
경기 (11)	47	燈下不明의 近畿 情形(特派員), 天下名物 高麗人蔘(一記者), 開城店員의 慘憺한 生活를 論하야 店主의 覺醒을 促하노라(點然草 寄), 嗚呼 思悼世子(靑吾)
	48	일홈 조흔 富川郡(一特派員), 仁川아 너는 엇더한 도시? 1
	50	仁川아 너는 엇더한 도시? 2, 江都踏查記(乙人), 新局面을 展開하는 金浦郡, 배부고 배속 빌어먹는 始興郡, 京城의 藩屏인 高陽郡
경성 (25)	48	外人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 京城(中間人), 京城 開川 石築의 始, 其命維新的의 京城, 네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울 中心勢力의 流動(小春), 余의 京城感과 希望-京城人과 地方人, 京城의 二十年間 變遷(尙厚生), 在京城 各教會의 本部를 歷訪하고(起漣), 京城 教育界의 一考察과 教育委員會 建議案(姜邁), 團體方面으로 본 京城(一記者), 文壇으로 본 京城(稻香), 言論界로 본 京城(達成), 書畫界로 본 京城(及愚生), 出版界로 觀한 京城(春坡), 朝鮮의 劇界 京城의 劇團(玄哲), 京城의 花柳界(一記者), 京城의 迷信窟, 京城의 特産, 京城의 貧民 貧民의 京城(기진), 京城의 名勝과 古蹟, 京城의 人物百態(觀相者), 醜로 본 京城 美로 본 京城(네눈이)
	49	京城帝國大學 豫科의 開校式을 보고서(一記者), 形形色色의 京城 妾魔窟 可驚可憎할 有産級の 行態(觀相者), 一年만에 본 京城의 雜感(晶月)
평남 (11)	51	朝鮮文化基本調査(其八)-平南道號(踏查員 金起田 車相瓚), 平壤의 人物百態(觀相者), 西京夜話, 鹿足夫人·桂月香·玉介(靑吾 記), 平壤府의 藩屏인 大同郡 외, 西鮮과 南鮮의 思想上 分野 政治運動에 앞장서고 社會運動에 뒤떨어진 西鮮, 듯던 바와 다른 西道の 貧富懸隔 資本閥의 橫行 地主級の 無廉!, 平南의 二大民弊 蠶繭共同販賣과 道路競進會, 滿洲粟에 목을 매는 細民의 生活苦, 雜觀雜感(靑吾)
	52	西京雜絕(靑吾)
함남 (11)	52	北行三日間(藍湖에서 朴達成)
	53	踏查記에 先하야(達成), 彼丈夫我丈夫의 咸南均勢, 家給人足の 咸鏡南道, 咸鏡線 開通과 北鮮 兄弟에게, 咸南에서 본 이꼴 저꼴, 越便兄弟와 國境兄弟



	54	咸南 列邑 大觀, 大陸의 景趣로 본 元山港의 風光(元山支社 金春岡), 北國千里行(靑吾), 咸興과 元山の 人物百態(觀相者)
충북 (3)	58	忠北의 三大名物과 二大鑛山, 忠北踏查記(特派員 車相瓚), 湖中雜記
황해 (4)	60	黃海道踏查記(車相瓚 朴達成), 可驚할 黃海道 内の 日本人 세력, 黃海道에서 얻은 雜同 散興(朴達成), 郡守를 歴訪하고 郡守諸郡에게 爲先 郡守들의 觀相부터(朴達成)
전남 (2)	63	全羅南道踏查記(特派員 車相瓚), 湖南雜觀 雜感(靑吾)
전북 (2)	64	全羅北道踏查記(特派員 車相瓚), 湖南을 一瞥하고(靑吾)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사 보고서의 명칭이 평남까지 도호라는 이름으로 나갔다가, 함남부터는 답사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함남 편을 거치면서 점차 전체 기사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간파된다. 개벽사가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조사는 결국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여러 호에 기사가 나뉘어 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 조사는 금강산과 각 사찰에 관한 기사를 추가로 쓰려고 했지만 페이지 수가 넘쳐 다음으로 넘기게 되었다고 밝혔다.<sup>37)</sup> 이처럼 기본조사가 중요했다고는 하지만, 잡지사의 입장에서 조사 결과만 계속 실을 수 없으므로 보고서 내용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조사는 단지 보고서 형식만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사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부분의 기사가 조사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필요에 따라서 외부 청탁도 있었다는 것을 경성(48호, 49호), 충남(46호)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또한 “기행 1편으로 써 함북호(咸北號)를 대(代)하고 최후에 그 기행에서 뽑을 것을 뽑아서 함북의 대개를 말하고 말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sup>38)</sup> 골격은 각 군별 조사 보고였으나 인물평, 지리에 대한 감상, 또는 한시와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조사 결과가

37) 「江原道를 一瞥한 總感想」, 『개벽』 42, 1923년 12월, 108쪽.

38) 春坡, 「먼저 咸北號를 읽으실 이에게」, 『개벽』 43, 1924년 1월, 141쪽.

발표되었다. 이는 독자들의 호응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33호부터 64호까지 무려 32호에 걸쳐 실린 기본조사는 『개벽』이 보낸 한 시대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이제 기본조사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개벽사는 사업의 첫 삽을 뜰 때부터 중요한 조사 항목을 지정했다. “인정풍속의 여하(如何), 산업교육의 상태, 제(諸)사회문제의 원인 급(及) 추향, 중심인물 급 주요사업기관의 소개 급 비평, 명승고적 급 전설의 탐사, 기타의 일반상세에 관한 관찰과 비평” 등 여섯 가지 항목이었다.<sup>39)</sup>

이는 위 〈표 2〉의 기사 목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혁, 자연지리(위치 경계 지세 기후), 인구와 호수, 교통, 교육, 종교, 산업(농업 상공업 수산업 광업 임업) 등에 대한 기초적 자료 수집을 토대로 하고, 지역사회운동과 지역의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명승·고적·전설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형제여 금일 우리 조선에 잇서서 무엇을 그다지 자랑하며 무엇을 그다지 칭찬 할 것이 있는가. 총독부와 가티 각군의 효자 열녀를 조사하여 포양(褒揚)한다 하여도 만족할 것 안이며 군청 도청에서 자기 성적 자랑하기 위하여 과장의 보고하듯 시 어느 지방이 엇지 발전되얏다고 선전하야도 만족할 것이 안이며 (중략) 독약이 구(口)에는 고(苦)하나 병에는 이롭고 충언(忠言)이 이(耳)를 역(逆)하나 행(行)에는 이롭다. 우리가 이 점을 김히 서로 양해하면 오해도 업고 비난도 업을 것이다.<sup>40)</sup>

위 인용문은 기본조사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벽사는 조선지식을 수집 하면서 조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즉 듣기 좋은 정보를 취합해봤자 실제 조선운동에 유리한 점이 없고, 본인들도 힘들지만 “매 곳에 정이 들고 사랑하는 아해에게는 매를 만이 주는 법이다. 내가 그

39)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各道道號의 刊行」, 『개벽』 31, 1923년 1월, 103쪽.

40) 靑吾, 「湖西雜感」, 『개벽』 46, 1924년 4월, 131~132쪽.

단처(短處)를 말하는 이면에는 피가 매치고 눈물이 만이 난다”고 하면서 조선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의 조선지식 축적을 시도했다.<sup>41)</sup>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 사항 외에 제일 관심을 쏟은 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운동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개벽사는 현재 강원도 사람들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그 등쌀에 밀려난 황해도 평안도 서울 개성 사람들에게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밀려날 곳이라고는 동해바다 밖에 없으며 “동족에게 정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사회운동의 발전도 더더 각 군 청년회 회장을 보통학교장, 부회장을 면장, 고문을 경찰서장이 하고 회원은 경찰서원이 하는 등 “시대적 청년회가 되지 못하고 일개 관청의 부속적 사업 또는 관리의 구락부”로 존재한다고 파악한 바 있다.<sup>42)</sup> 개벽사는 기본조사가 마무리될 때도, 각지 사회운동의 상황을 중요하게 취급했다.

최후에 사상 방면으로 보면 전남은 소작운동이 제일 격렬하고 전북은 노동운동이 비교적 진전되는 모양이요 강원도는 영서(嶺西)는 보수적이 만코 영동(嶺東)은 진취적이 다(多)하야 신사상운동도 상당한 활기가 있다. 기외(其外) 함경, 평안은 사상운동이 비교적 미약한 중 특히 평안도인의 보수주의가 공고한 것은 우에 말함과 같다. 또 황해도는 동척의 세력 기타 일본인 토지가 다한 까닭에 그 반동으로 근래 소작운동과 사상운동이 비교적 진전되었다.<sup>43)</sup>

이처럼 조선운동의 앞날을 계획하기 위해 지역사회운동의 상황을 검토한 것과 더불어, 개벽사는 현실 활동과는 조금 무관하게 느껴지는 조선의 역사문화 지식을 정리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장 무엇인가에 써먹기 위해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전체 조선지식을 집적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정보이고, 이는 주체의 관심이 깊게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41) 「江原道를 一瞥한 總感想」, 『개벽』 42, 1923년 12월, 108쪽.

42) 「江原道를 一瞥한 總感想」, 『개벽』 42, 1923년 12월, 110~111쪽.

43) 「十三道の 踏査를 맞고서」, 『개벽』 64, 1925년 12월, 114쪽.

보고서 내에서 다루어지는 지역의 대표인물, 명승·고적 등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두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신 특별 지면을 통해 따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주요 기사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것에 착목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남에서는 별도 기사를 통해 논개(論介)와 아랑(阿娘) 등 역사인물에 대해 전설 차원에서 조명하는가 하면,<sup>44)</sup> 공간적으로 지리산의 지위를 강조했다. 논개와 아랑은 역사적 사실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조선시대 여성 인물로서, 기사는 관련 기록을 나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리산의 경우 민족의 활동공간으로서 중요하게 거론하며 과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모화주의(慕華主義)에 중독되어 소衡山(小衡山)이라고 불렀던 일을 비판했다. 현재 지리산의 산림자원이 남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sup>45)</sup> 이밖에도 배양동(培養洞)을 조선 면화의 발원지라고 하면서 국산장려가 강조되는 이때 문익점(文益漸)을 재조명하고자 했고, 함양의 사근역(沙斤驛) 앞에서는 고려 말기 배극렴(裴克廉)이 왜구의 침입에 저항하던 사실을 기억했다.<sup>46)</sup>

경북은 김충선(金忠善)과 향랑(香娘)에 대한 서술이 눈에 띄는데, 김충선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으로 병자호란 당시에도 조선을 위해 활동하고자 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일본이 조선인에게 ‘동화를 요구하고 있던 시기에, 조선에 ‘동화’한 역사 속 인물이 기록자의 관심을 끈 것이다.<sup>47)</sup> 한편 향랑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서 전해진 민요와 연결되는 것으로, 계모에게 그리고 시집살이로 학대 받은 여성의 삶을 고발했다.

평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은 것은 인물로서는 홍경래(洪景來), 공간으

44) 靑吾, 「南江의 落花와 金碧의 冤血」, 『개벽』 34, 1923년 4월, 32~35쪽.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다른 글이 평남도호에도 실렸다. 靑吾 記, 「鹿足夫人·桂月香·玉介」, 『개벽』 51, 1924년 9월 참조.

45) 「智異山譜」, 『개벽』 34, 1923년 4월, 39쪽.

46) 車相讚, 「우리의 足跡-京城에서 咸陽까지」, 『개벽』 34, 1923년 4월, 59~60쪽, 65쪽.

47) 靑吾, 「三百年前에 歸化한 大和魂 慕華堂 金忠善公의 奇行」, 『개벽』 36, 1923년 6월, 22~23쪽.

로서는 묘향산이었다.<sup>48)</sup> 이 기획의 집필자는 “나는 청천강(淸川江) 이북을 단 여본 적이 한 두 번만이 안이었습시다. 단일 때마다 멀리서 청천강 이북을 바라만 보면 벌써 어느듯 을지문덕, 강감찬, 임경업, 홍경래 여러 장군을 상상하게 되었습시다. 기중(其中)에도 가장 옷둑하게 나타나는 이는 죽은지 임이 올애고도 늘 살아있는 우리 대원수(大元帥) 홍경래 장군님”이라고 하면서 그를 조명했다.<sup>49)</sup> 특히 이 글의 말미에서 홍경래가 지역차별 등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일으킨 “혁명사업”에 실패한 여러 원인을 들면서, “다수한 민중이 오래동안 정성 들인 것이 업슨 따문”, “정신적 단결과 정신적 조직이 업섯든 것”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비슷한 시기 천도교청년당의 조직 필요성을 강조하던 것과 동일한 논리였다.<sup>50)</sup>

다음으로 강원에서는 태봉(泰封)을 세운 궁예(弓裔)와 한말 의병전쟁을 이끈 민공호(閔肯鎬)의 사적을 서술했다.<sup>51)</sup> 충남에서는 삼국시대에 신라 백제가 서로 대립하고 고려 때 거란과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었으며 조선시대 들어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이몽학(李夢鶴)의 난, 동학농민혁명, 의병전쟁 등이 모두 이곳에서 일어나는 등 “유사 이래 전쟁의 지(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글의 필자는 “이조 오백년 역사는 혈(血)의 역사요 루(淚)의 역사”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동학난’과 ‘의병난’을 상세히 기술하겠다고 설명했다.<sup>52)</sup>

48) 박달성은 묘향산에 대해 기록하면서 “山이고 水이고 人이고 物이고 中國을 依倣치 안코는 된 것이 업다. 妙香山에까지 中國으로 中毒을 식켰다. 우리의 先人들이야말로 더럽게도 中國에 忠僕이었지”라고 썼다. 春坡, 「一千里 國境으로 다시 妙香山까지」, 『개벽』 38, 1923년 8월, 62쪽.

49) 一記者, 「淸江以北과 洪景來將軍(距今 130년전 事實)」, 『개벽』 39, 1923년 9월, 91쪽.

50) 一記者, 「淸江以北과 洪景來將軍(距今 130년전 事實)」, 『개벽』 39, 1923년 9월, 98쪽.

51) 一記者, 「泰封王 金弓裔는 엇더한 人物인가」; 「悲絶壯絶한 閔大將의 畧史」, 『개벽』 42, 1923년 12월.

52) 一記者, 「戰爭上으로 본 忠淸南道」, 『개벽』 46, 1924년 4월, 121쪽. 이 글의 필자는 차상찬으로 보인다. 바로 다음호에 사도세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조 오백년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고 눈물의 역사라는 말이 ‘그대로’ 등장한다(靑吾, 「嗚呼 思悼世子」, 『개벽』 47, 1924년 5월, 124쪽).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왕조를 바라보는 개벽사의 시각이 일부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대립과 다툼, 그로 인한 좌절이 전사회를 지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충남을 “양반의 근거지인 고로 계급의 사상이 아즉까지 다(多)하고”라고 보는 것에서 다시 확인되며,<sup>53)</sup> 충북 답사에서 괴산군 화양동(華陽洞)을 거론하며 송시열(宋時烈)을 “근세 지나(支那) 숭배자로 유명한 학자”라고 부른 사실도<sup>54)</sup> 조선왕조의 역사와 지배층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경기와 경성의 경우 사도세자를 설명하거나 경성의 역사적 지위를 살펴보는 내용이 주로 부각되는데, 이는 이후 조선연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겠다.

일국(一國)의 왕도(王都)이든 경성은 과거 반(半)천년간 여러 가지의 정변과 전란을 경험하여스리라. 상(上)하야 이조 왕년(往年)에는 성삼문(成三問)의 사건이라던지 갑자의 사화라던지 을묘의 사화라던지 연산군의 사(事)이라던지 기후(其後) 이조 중년(中年)에는 삼로(三路)의 경성소란이라던지 광해군의 사건이라던지 인목태후의 유궁사건(幽宮事件)이라던지 남한산의 위금(圍禁)이라던지 당란(黨亂)의 사건이라던지 척화비 사건이라던지 하(下)하야 이조 말년에 지(至)하야는 임오군변이라던지 갑신변란이라던지 갑오전란이라던지 다시 최근에 지하야는 일한합병의 정변이라던지 삼일(三一)의 사건이라던지 여러 가지의 정변과 소요가 만히 경성에서 기(起)하여스며 경성을 소란케 하여스니 만치 과거 500여년간의 경성은 참으로 역사(歷史)가 만든 경성이다. (중략) 500여년간의 경성은 비(悲)에 싸운 경성이었섯고 화(禍)에 싸운 경성이었섯다.<sup>55)</sup>

위 경성에 대한 내용은 피와 눈물의 역사를 밝아온 조선의 축소판이었다. 슬픔과 온갖 불행에 휩싸였던 경성에 대한 조명은 사실상 조선왕조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듯 각 지역에서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물론 답사기가 소략한 지역에서는 조선지식 정보도 비교적 적게 등장할 수밖에

53) 「兩班의 淵藪인 忠南地帶」, 『개벽』 46, 1924년 4월, 109쪽.

54) 「湖中雜記」, 『개벽』 58, 1925년 4월, 93쪽.

55) 鮮于全, 「余의 京城感과 希望, 京城人과 地方人」, 『개벽』 48, 1924년 6월, 60쪽.

에 없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개벽사가 주목한 역사문화 지식은 내용상 외세에 대한 저항, 체제의 피해자·반역자의 재조명, 또는 우리 역사를 잘못 이끌어간 지배층에 대한 고발 등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여성과 같은 약자·소수자에 대한 보호의식도 일정하게 깔려있었다. 둘째, 시기적으로는 고대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개벽사가 고대로부터 자신의 계보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외세와 조선왕조에 대한 저항을 배경으로 동학으로부터 나름의 ‘혁명 전통’을 수립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본조사 사업이 종료된 이후 개벽사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각 지역에서 제일 많이 접했던 이야기가 “갑오혁명란에 동학군(群) 만히 죽은 이악이”와 “기미(己未)운동에 천도교인이 만히 죽은 이악이”라고 밝혔다.<sup>56)</sup> 기본조사의 추진이 새로운 조선운동을 개척할 의지로부터 시작했듯이, 조선지식의 축적 영역도 이와 무관할 수 없었고, 또한 향후 본격적인 연구·집필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천도교판 조선연구가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 III. 개벽사의 편집방침 변경과 조선연구의 출발

개벽사는 기본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기간을 회고하면서 “퇴폐의 조선, 부흥의 조선, 그것의 총량을 그대로 들어 동포의 전(前)에 소개하려고 업는 힘이 나마 애는 무한히 쓰노라고 하얏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57)</sup> 앞서도 언급했지만 성패 여부를 떠나서 개벽사가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 부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56) 「十三道の 踏査를 맞치고서」, 『개벽』 64, 1925년 12월, 114쪽.

57) 「謹謝二千萬同胞」, 『개벽』 64, 1925년 12월, 1쪽.

그러나 이러한 조사 활동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고, 개벽사는 창간 5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동포 실황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다짐 아래 향촌 중심 유동기자(流動記者)를 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선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중령(中嶺), 노령, 일본, 미주 등 동포들이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실황을 답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sup>58)</sup> 그렇지만 『개벽』이 얼마 못가 폐간하게 되면서 이러한 구상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본조사를 거치면서 『개벽』의 편집방침에는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편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으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조선에 대한 기획이 대폭 증가했다. 1925년 7월에 발간된 61호는 ‘조선의 자랑’ 특집이었다. 개벽사가 이와 같은 기획을 시도한 이유는 ‘편집 후기’를 통해 제시되었다.

여태껏 조선의 단점은 만히 들추어 보았지만 조선의 장점은 말해보지 못했스니 이번엔 특별히 「조선자랑」이나 좀 해보자. 광명면으로 조선을 보아 보자. 오타 그렀다. 그러게 하자 이것이 편집 전언(前言)이다. (중략) 이번 조선자랑 기사 중의 이병도씨의 세종대왕과 조선문물이란 것과 또 임경업 장군 전기도 래호(來號)로 밀어둔다.<sup>59)</sup>

그동안 피와 눈물의 역사로서 조선을 봐왔다면, 조선의 광명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2편이 빠졌다고 하니 실제 수록된 10편과 함께 전체 구성은 12편으로 기획되었고, 주제는 주로 조선의 문화(차상찬), 미술(고희동), 한글(권덕규), 산업(선우전) 등이었으며, 김기전은 단군신화를 인내친 사상과 연결시키는 논설을, 이병도는 고구려의 역사적 지위를 설명했다.<sup>60)</sup> 이

58) 小春, 「過去開闢과 將來開闢」, 『개벽』 61, 1925년 7월, 3쪽.

59) 「餘言」, 『개벽』 61, 1923년 7월, 94쪽.

60) ‘조선의 자랑’ 특집은 다음과 같다. 起田, 「朝鮮 民族만이 가진 優越性」; 靑靑, 「天惠가 特多한 朝鮮의 地理」; 李丙燕, 「高句麗 國民의 氣象과 노력」; 권덕규, 「마침내 조선 사람이 자



가운데 총론에 해당하는 차상찬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유사 이후 삼국시대는 소위 조선의 황금시대로 천문학(예여例如 첨성대) 미술, 음악(예여 우륵) 정치, 법률, 병학 등이 다 발달되고 이조에 지(至)하야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음문자(正音文字)가 발명되고 세계 최선(最先)의 철제활자가 발명되고, 철갑선, 비격진전뢰, 비행기가 발명되고 최근에는 또 금불문(今不聞) 고불문(古不聞)하고 금불비(今不比) 고불비(古不比)할 최근의 주의(主義)인 천도교가 창출되었다. 그 엇지 심상한 일이라 가위(可謂)하랴. 총이언지(總而言之)하면 조선은 현재의 극락세계요(정치 구축은 별문제-원문) 장래의 지상천국이다.<sup>61)</sup>

일단 고대사는 번영한 시대였고 조선왕조 시기에도 과학기술을 포함한 문화 영역에서는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새로운 이상인 천도교가 출현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설명했다. 조선의 자랑거리에 주목하는 것은 확실히 기존의 조선에 대한 부정의식으로부터 한 발 물러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천도교 세력이 조선 민족의 대표체로서 부상하기 위해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기 위한 문제의식도 개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62)</sup>

그러나 대체적인 골자는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지식정보를 축적하면서 조선의 정치적 부패상을 비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조선의 문제점을 짚던 논리로부터 긍정적 부면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었고, 개혁세력으로서 천도교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이 점에서 1925년 무렵부터 조선연구의 시작은 최소한 이 시점에는 기본조사와 단절이라기보다 연속적 성격이 강했다.

랑이어야 한다; 高義東, 「朝鮮의 十三 大畫家」; 鮮于全, 「朝鮮 産業과 그 價値」; 「外國人의 본 朝鮮의 印象」; By Hugh Miller, 「The impression of Korean」; 「朝鮮人이 본 朝鮮의 자랑」; 朴돌이 記, 「八道代表의 八道자랑」, 『개벽』 61, 1925년 7월.

61) 靑吾, 「天惠가 特多한 朝鮮의 地理」, 『개벽』 61, 1925년 7월, 12쪽.

62) 차혜영,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학, 개벽사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호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8, 2014, 72쪽.

조선의 의제화는 1926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병인양요 60년이 되는 병인년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관심 대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천주교도 학살이 “인민의 문화를 낙오케 하여 국가 백년의 대계를 오(誤)하얏슬 뿐”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sup>63)</sup>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민중은 어느 때일지라도 이와 가튼 민중 본위의 새 세상을 세우고야 말지며 그래서 세우기까지는 언제던지 이와 가튼 싸울 것이다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의의를 조명하기도 했다.<sup>64)</sup>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1926년 7월의 70호를 ‘조선 500년 특집’으로 꾸미는 것으로 이어졌다. 70호는 순종의 죽음 이후 발행되었는데, 개벽사는 70호 기획의 변을 “우리는 한갓 비통의 눈물뿐으로 전민족의 불평불만한 일을 다 해결할 것은 안이다. 백척간두에 다시 한 거름을 나아가서 갱생의 운동을 하고 화루위소(化淚爲笑)할 도(道)를 구하지 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sup>65)</sup>

즉 조선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또 다시 조선왕조의 역사를 조명한 것인데, 그 내용도 조선시대사 전체에 대한 소묘, 태조 이성계의 건국과정과 정책 방향, 조선왕조 개혁운동, 외세에 대한 자주를 기본축으로 설정했다.<sup>66)</sup> 이상의 내용은 개벽사가 기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선지식의 내용과 거의 동일했고,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점차 조선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67)</sup>

63) 車相瓚, 「六十年 前の 朝鮮과 洋擾」, 『개벽』 65, 1926년 1월, 65쪽.

64) 一記者,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 『개벽』 68, 1926년 4월, 43쪽.

65) 「餘滴」, 『개벽』 70, 1926년 6월.

66) 70호 수록 기사는 아래 5편이다. 車相瓚, 「回顧二十七歷代」; 車賤者, 「李太祖의 建國百話」; 金自立, 「五百年間の 革命運動」; 「五百年間の 外亂一瞥」; 「政鑑錄」, 『개벽』 70, 1926년 6월. 본래 城東學人의 「土禍와 黨爭」도 같이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71호로 이월되었다. 71호에는 안재홍과 차상찬의 글이 실렸다. 安在鴻, 「漢陽朝五百年總評」; 靑吾, 「土禍와 黨爭」, 『개벽』 71, 1926년 7월.

67) 한편 70호는 독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으며 잡지 판매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발행 직후 수일만에 당국으로부터 압수를 당해 호외로 발행하다가 계속해서 압수를 당했다고 한다. 「餘墨」, 『개벽』 71, 1926년 7월, 97쪽.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선연구는 『개벽』이 폐간된 이후 출간한 『별건곤』으로도 계승되었다. 『개벽』 61호 ‘조선의 자랑’ 특집에 실리지 못했던 임경업 전기는 『별건곤』 창간호로 이어졌고, 8호에서 ‘역대음험인물토죄록’이라는 기획에 따라 송시열, 정도전(鄭道傳), 유자광(柳子光)을 집중 성토했던 것도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sup>68)</sup>

그러나 이것이 천도교가 새로운 운동방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기본조사의 명실상부한 연속적 계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과 계급의 양극을 극복하겠다는 사고와 조선민중으로부터 그 희망을 찾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했다. 이른바 천도교가 민중운동을 계승하고 동학농민혁명을 이어 식민지 체제와 대결하기 위한 ‘혁명성’을 추구할 때만 생명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천도교 세력의 조선연구가 어떠한 문제의식 아래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맺음말

1923년 1월 처음 계획이 제시되고, 2월 경남을 대상으로 첫 답사가 시작된 이후 1925년 12월 보고서가 수록되면서 일단락된 기본조사는, 1922년 가을 범인간적 민족주의 실현이 개벽사의 목표로 제시되면서 사우제도 시행과 함께 추진되었다. 즉 기본조사의 일차적 목표는 민족과 계급의 양극을 넘는 창조적 조선운동의 개척에 있었다.

13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실지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읍지, 관련 연구성과, 현장에서 얻은 군세일반 등의 참고 자료를 바탕

68) 車相瓚, 「傳記 萬古精忠 林慶業將軍」, 『별건곤』 1, 1926년 11월; 鶴步, 「事大主義와 依賴思想의 張本人 所謂 海東朱子 宋時烈」; 車靑吾, 「殺主魅·害賢鬼 反覆無雙의 奸魁 鄭道傳」; 趙奎洙, 「朝鮮의 土禍를 攄음으로 이르킨 大凶孽·大奸物 柳子光」, 『별건곤』 8, 1927년 8월.

으로 이루어졌고, 실지조사는 천도교 조직과 사우, 지역사회운동 세력, 명망가 층을 협조자로, 군수와 행정관료, 학교 교원, 민간유지를 인터뷰 대상으로 삼고 추진했다.

『개벽』지를 통해 발표된 조사 결과는 여덟 번째까지는 도호의 형태로, 그 뒤로는 답사기의 형식을 띠었다. 또한 지면으로 조사 결과가 옮겨질 때 다양한 서사 형태가 추구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행, 외부 필자의 원고, 한시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이와 같은 다채로운 구성도 점차 위축되었다. 이는 개벽사의 입장에서 기본조사가 매우 어렵게 추진된 상황을 반영했다.

한편 개벽사의 조선지식을 수집하는 관점은 조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맞춰졌다. 기본조사는 연혁과 각종 인문·자연지리적 지식정보를 기본으로 삼고, 일차적으로 각 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사회운동의 현황 파악을 목표로, 그리고 조선 역사문화 지식의 축적이 수반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벽사는 외세에 대한 저항과 지배체제의 피해자·반역자를 재조명하는가 하면 조선사의 지배층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이 초점을 맞춘 조선 지식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대한 것으로 동학·천도교의 혁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개입되었다.

기본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조선지식을 바탕으로 개벽사는 조선연구의 문을 열어나갔다. 문화사적 측면에서 조선을 긍정하는 인식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조선왕조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입장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연구는 『별건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재현되지만, 무엇보다 동학·천도교가 조선 민중이 쌓아온 혁명적 전통을 잇고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연구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박길수, 『차상찬 평전: 한국 잡지의 선구자』, 모시는사람들, 2012.
-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 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 편, 『차상찬 전집』 1~3, 청오차상찬기념사업회, 2018.
-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3, 민족문제연구소, 2009.

### 〈연구논문〉

- 김진량, 「근대 산문의 글쓰기와 지역 인식-〈개벽〉의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 연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0, 2007.
- 김태웅, 「일제강점기 小田内通敏의 조선통치 인식과 ‘조선부락조사」, 『한국사연구』 151, 2010.
- 김태웅, 「차상찬의 지방사정조사와 조선문화인식-‘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48, 2018.
- 류시현, 「1900~1910년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 문화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9-2, 2018.
- 박현수, 「일제의 침략을 위한 사회·문화 조사 활동」, 『한국사연구』 30, 1980.
- 박현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사회·문화 조사 활동」, 『한국문화인류학』 12, 1980.
- 박현수, 「일제의 식민지 조사기구와 조사자」, 『정신문화연구』 21-3, 1998.
- 성주현, 「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송민호, 「1920년대 근대 지식 체계와 『개벽』」, 『한국현대문화연구』 24, 2008.
- 이경돈, 「1920년대 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사림』 23, 2005.
- 이영학, 「일제의 ‘구관제도조사사업’과 그 주요 인물들」, 『역사문화연구』 68, 2018.
- 이희정, 「식민지 시기 글쓰기의 전략과 『개벽』-「조선문화의 기본 조사」를 중심으로

- 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1, 2010.
-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05, 1999.
-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2015.
- 정현숙, 「차상찬 연구①－기초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제언」, 『근대서지』 16, 2017.
- 정현숙, 「차상찬 연구②－필명 확인(1)」, 『근대서지』 17, 2018.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인 朴達成의 사회·종교관과 문화운동」, 『동학학보』 22, 2011.
- 차혜영,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학, 개벽사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 호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8, 2014.
- 한기형, 「배제된 전통론과 조선인식의 당대성－『개벽』과 1920년대 식민지 민간학술의 일단」, 『상허학보』 36, 2012.
- 홍순애, 「1920년대 기행문의 지정학적 성격과 문화민족주의 기획－『개벽』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2010.
- 허 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12, 2008.

[ABSTRACT]

## **Gaebyeoksa's Collection of Joseon Knowledge and Building the Foundation of Joseon Studies in the 1920's - with Focus on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Basic Examination of the Joseon Culture'**

Cho, Hyong-Yerl

I analyzed the nature of Cheondogyo Gaebyeoksa's collection of Joseon knowledge from 1923 till 1925 through the 'basic examination of the Joseon culture' and the influence of investigation activities on the Cheondogyo-affiliated intellectuals on Joseon studies. The city desk members of the editorial office of Gaebyeoksa made a tour of the 13 provinces around the country to collect data, and accumulated Joseon knowledge by using human networks for interviews. It started out in 1923 when Gaebyeoksa announced the 'pan-humanistic nationalism' and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the Joseon Movement, and adopted the Sauje as its organization and began the basic examination to expand the contents.

Collection of Joseon knowledge was planned as a means of the cultural movement, and the investigation staff tried to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made a list of figures, events, geography, organizations and customs in the history and culture of Joseon. Most of the collected Joseon knowledge concerned the history of the Joseon era, and items related to the resistance to the

ruling system or the activities of Donghak Cheondogyo were emphasized.

Starting from 1925 when the investigation was completed, Magazine Gaebyeok featured the special series to shed new light on Joseon. Also, Byeolgeongon, which was published after discontinuation, contained a lot of articles about the Sahwa Dangjaeng of Joseon and struggles against foreign powers. The 'basic examination of the Joseon culture', which started out as a cultural movement, resulted in a change of the editorial policy of Gaebyeok and the Cheondogyo-affiliated intellectuals' advance into Joseon studies.

Key Words : cultural movement, Cheondogyo, investigation activity, criticism of the Joseon Dynasty, Donghak
---